

## [성명]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한다

각 신문 보도로 밝혀졌듯이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인원에 대한 기술이 변경됐다. 이는 근현대사의 숫자 등에 대해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써야 한다"라는 새 검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은 오랜 시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하며 학살이 일어난 지역에서 추모 행사를 해온 사람들이 발족시킨 모임이다. 오랜 시간 활동해온 본 모임의 회원들이 밝혀 온 사실에 근거하여 이번과 같은 검정을 간과할 수 없다.

새 검정 기준으로 인해 관동대지진 희생자의 수가 모호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이 희생자의 수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첫째, 이번 검정에서 "통설이 없다"라는 것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 검정 의견이 첨부된 교과서는 지난번 "경찰, 군대, 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은 수천 명에 달했다."라고 기술하여 검정을 통과했다. "수천 명"이라는 과학살자 수는 최근의 역사 연구에서 제시된 것으로 상기의 교과서에 기술된 숫자는 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검정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기술에 검정 의견이 첨부되었다. 그리고 출판사 측의 수정 결과 "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에 대해서 당시 사법부는 230 여 명으로 발표했다. 군대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인원과 사법부 보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 학살을 포함하면 그 수는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인원에 대해서 통설은 없다."라고 서술되었다. 문부과학성이 검정에서 "통설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기의 역사 연구의 성과가 "통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지난 후 사법부에 의한 "230 여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학살자 수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을 통과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시신을 숨기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사법부 조사의 학살자 수가 사건을 축소시켜 보이려는 은폐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상기에 기술한 대로 사법부 조사의 은폐를 지적했다.

사이타마현에서만 223 명에서 240 명의 조선인 피해자가 있었다는 전쟁 후의 조사 결과도 있다. 마치 숫자의 정확성에 집착하는 것 같지만 실태와 다른 숫자의 기재를 인정하는 문부과학성의 검정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다.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항상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학에 있어서, 무엇이 "통설"인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명확한 근거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통설인지 아닌지를 일방적으로 판단해 기술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하는 행위다. "내각회의 결정 등으로 나타난 정부 견해나 대법원의 판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에 근거해서 기술한다"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새 검정 기준은, 정권에 의한 학문과 교육의 지배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강하게 항의한다. 이러한 자의적인 검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검정에 의해 "230 여 명"이라는 적은 학살자 수의 기재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조선인 학살 사건의 과소평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위는 학살된 조선인과 그 유족을 모독하는 것이다. 원래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가 불분명한 것은 학살 사건 후에 당시의 정부가 조선인들에 의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사체를 소각하는 등, 학살의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이번의 검정은 그러한 은폐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가 관여한 학살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태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새 검정 기준에 의한 검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연구의 성과가 반영된 기술이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① 일본 정부는 군대와 경찰이 관련된 사건도 포함시키고, 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 공표할 것.
- ② 일본 정부는 학살된 조선인·중국인·일본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할 것.
- ③ 이상의 조사를 포함시킨 관계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고 항구적으로 보존할 것

2015년 5월 16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

#### 공동대표

이시다 타다시(石田貞-사이타마현〔埼玉縣〕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고문)

이시바시 마사오(石橋正夫-일조〔日朝〕 협회 회장)

강덕상(姜德相-시가현립대학〔滋賀縣立大學〕 명예교수,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릿쿄대학〔立教大學〕 명예교수)

요시카와 키요시(吉川清-지바현〔千葉縣〕에서의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희생자  
추도·조사 실행 위원회 대표)